

Sum: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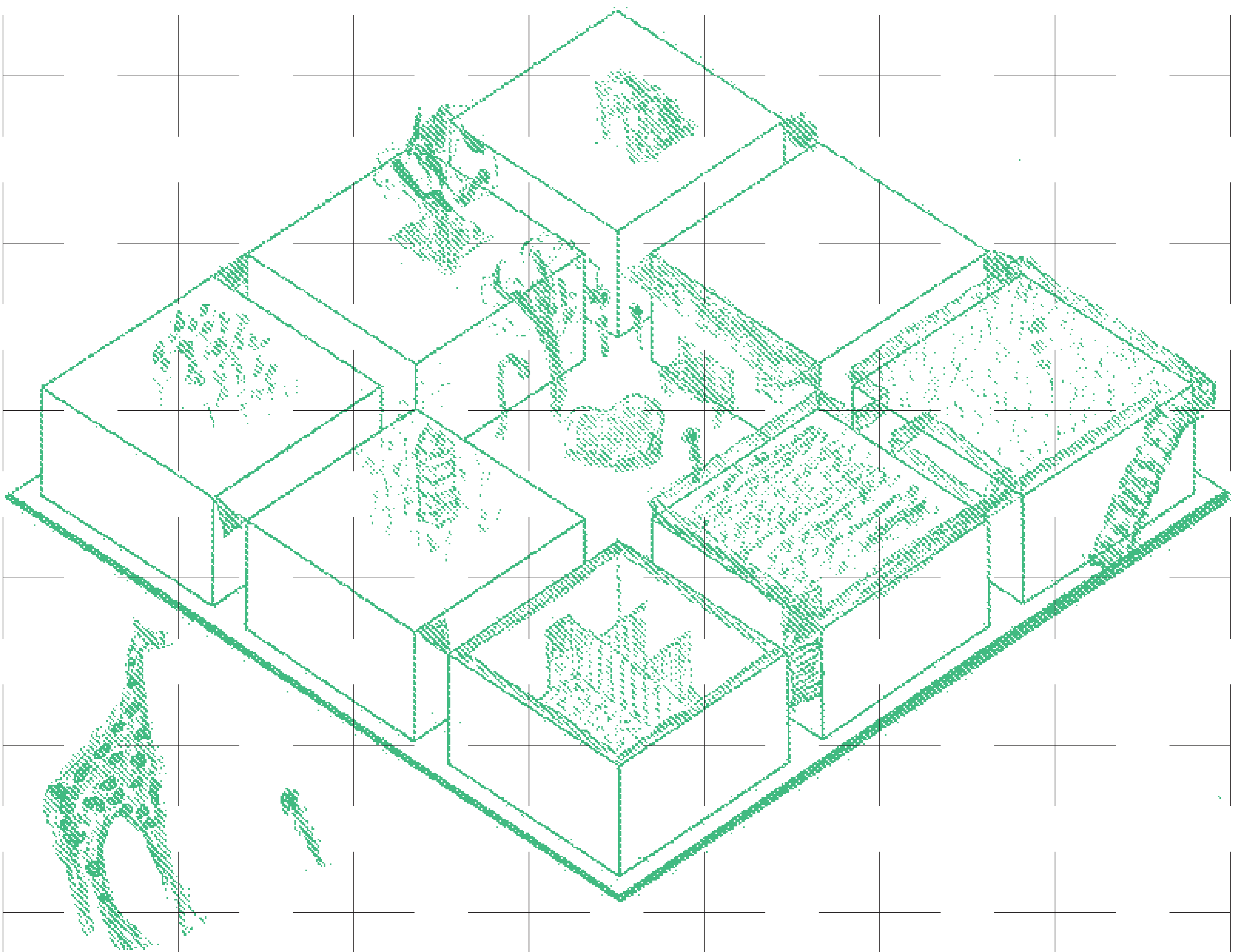
섬: 공동체

Workshop

Saturday
10:00 - 12:30

Week 5
(2021.3.20)

Drawing by
이동원



우로공리는 열이 쓰는 물레의 우물이 있으면 더 빠르게 속도가 걸라.

사방은 물레를 돌리며 비제로 모든 위대한 동물을 하나로 보고, 동물들이 같이

비행으로 보고, 새, 벌이 날아다 비행으로 있다. 그럼 꽃, 풀들이 자라게 되어

꽃은 땅이 생기면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스
리버

공유, 자연

Sum: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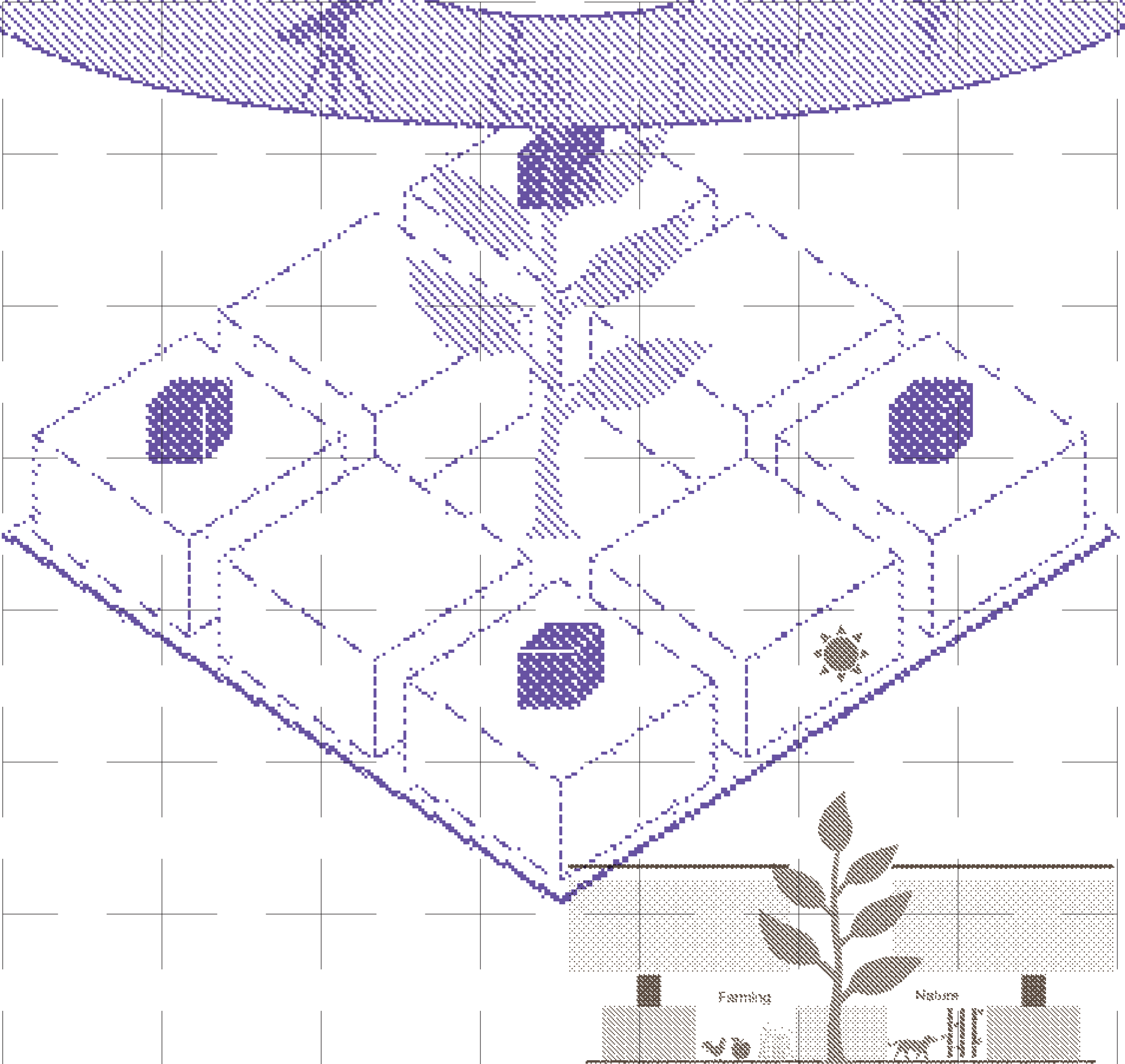
섬: 공동체

Workshop

Saturday
10:00 - 12:30

Week 5
(2021.3.20)

Drawing by
김영주



Analog Forest Village는 도시 주거 공간에 숲이 들어있는 마을이다. 사람과 자연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생태마을이며, 독립적인 주거공간과 일과 여가생활이 가능한 공유공간이 연결되어 있다. 태양, 빗물, 바람 등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생태순환적 시스템을 적용하였다.

공동체: 사람-사람, 동물-식물, 사람-자연 함께 어울리는 공간
 공유공간: 식당, 도서관, 공방, 온실텃밭, 오피스 등
 에너지: 태양광 패널, 빗물 이용, 온실텃밭
 라이프스타일: 독립적인 주거공간, 공유 공간 이용으로 일, 여가생활
 자연: 주거공간 사이에 텃밭과 동물, 중앙 공간을 숲으로 조성

Analog Forest Village

Sum: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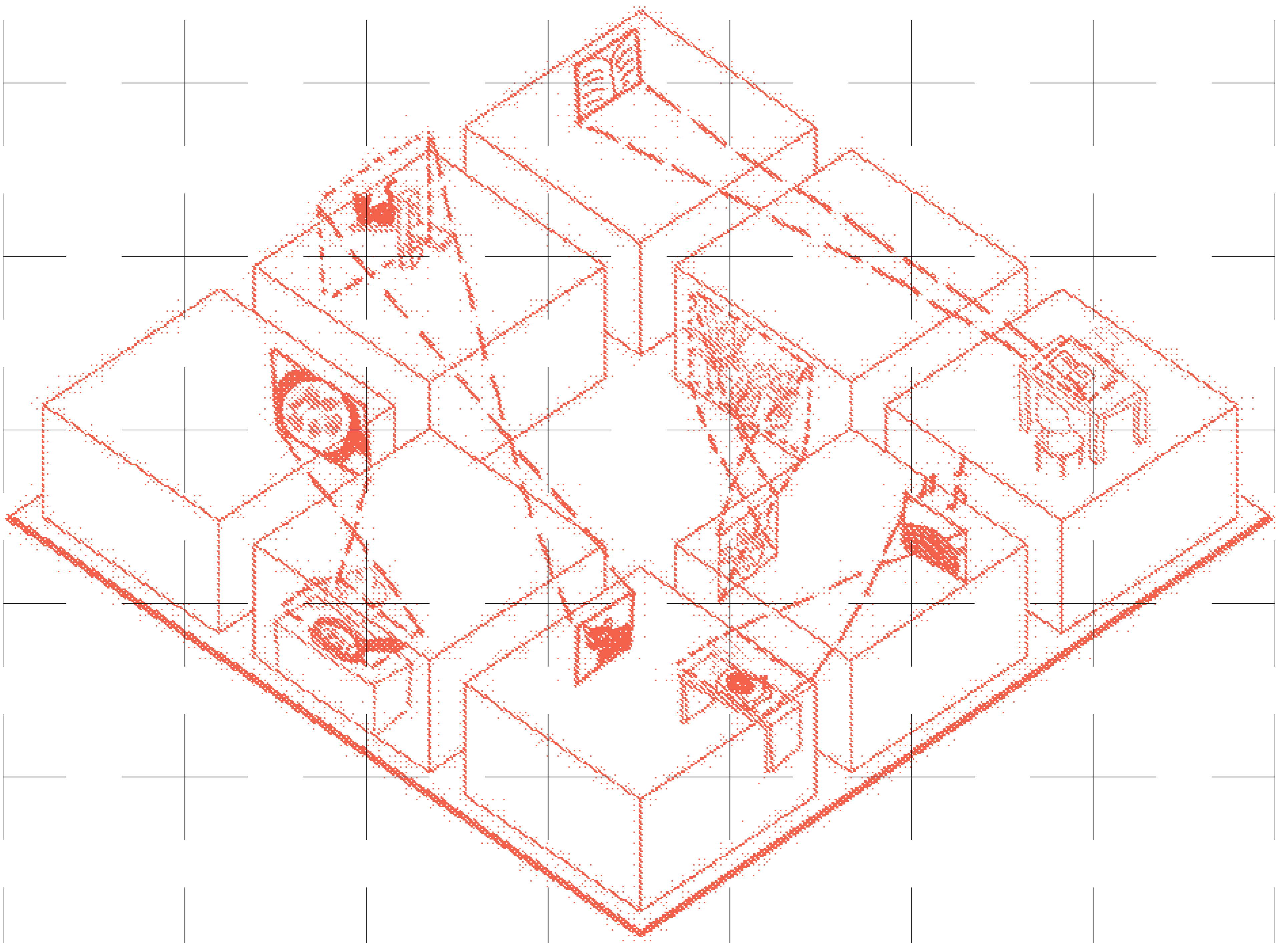
섬: 공동체

Workshop

Saturday
10:00 - 12:30

Week 5
(2021.3.20)

Drawing by
성유진



레퍼런스: Window Swap, Drive&Listen

목표: 방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을 매개로 외부와 소통하는 방법?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거나 별도의 공동 공간을 구비하지 않고도 공동체와 소통하는 방법?

방법: 개인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상 생활의 한 부분이나 scene을 크롭하여 화면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공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관계/대화의 매개체로 작용)

Youtube나 Instagram과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동체 구성원들의 '생활 조각'을 수집

☑ Virtual community 를 형성 (사람들을 연결하는 새로운 언택트 플랫폼?)

*Metaverse 의 개념 도입: 가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반대 방향으로도 작용 하는것 (현실과 비현실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생활)

☑ 송출된 장면을 보고 다른 구성원이 제안한 것을 내 공간이나 생활에 적용해보기

공용 공간 없는 커뮤니티 만들기

Sum: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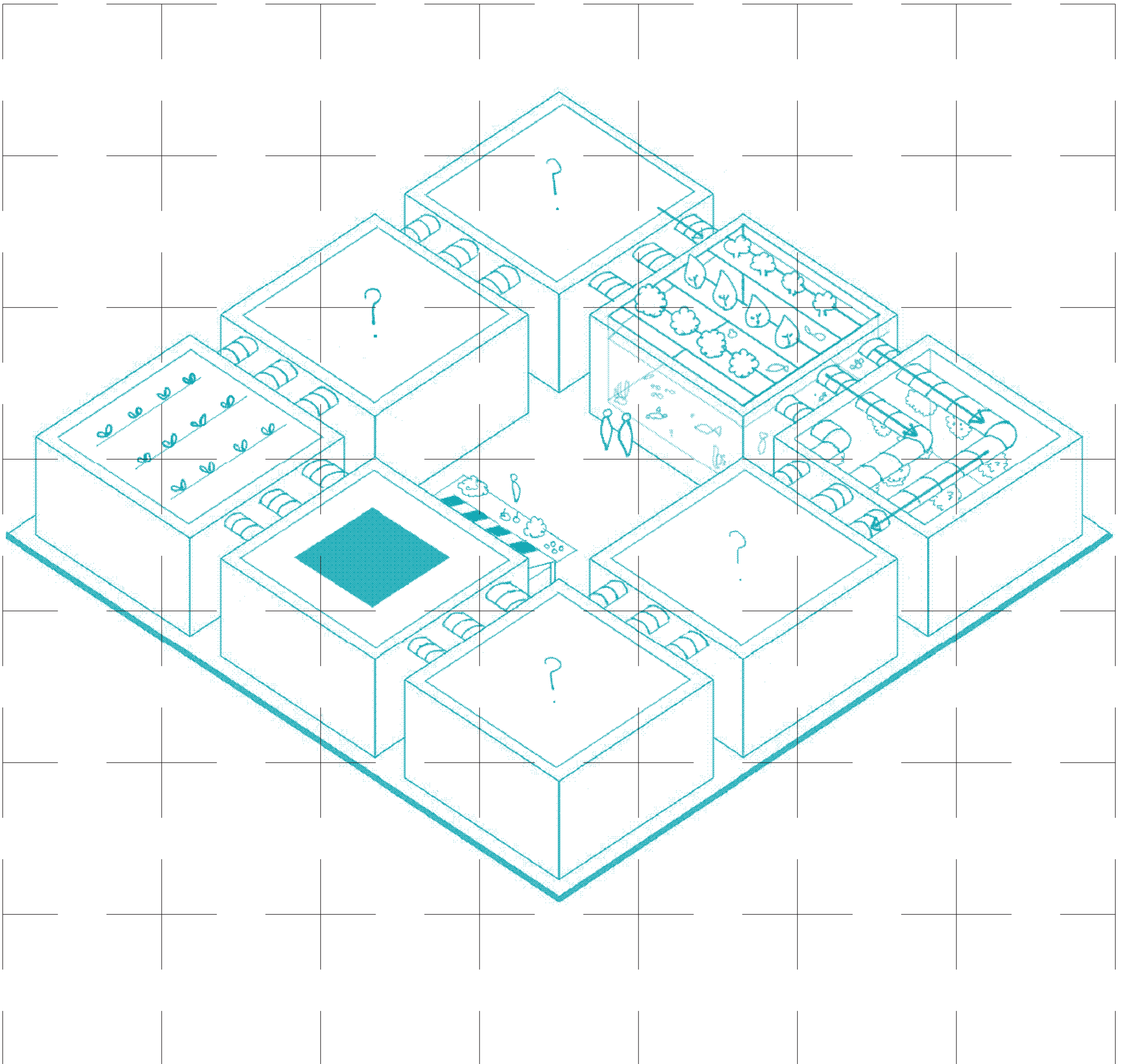
섬: 공동체

Workshop

Saturday
10:00 - 12:30

Week 5
(2021.3.20)

Drawing by
손수진



물고기를 키우는 수족관(물탱크) 공간을 중심으로 파이프 이 공동체에서 같이 공유하게 된다. 일방적으로 공급되는 관을 따라 물이 순환되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이 파이프에 농장이나 시장과는 달리 공동체에서 길러진 식물들을 통해 흐르는 물은 물고기가 살면서 배출하는, 식물을 키우는데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게 된다.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한다. 각 공간마다 취향에 따른 식물 물탱크를 중심으로 파이프관을 따라 이동하는 물은 들이 키워지며 이 식물들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내부공간에 친환경적 단열효과를 줄 수 있다.

파이프 하우스

Sum: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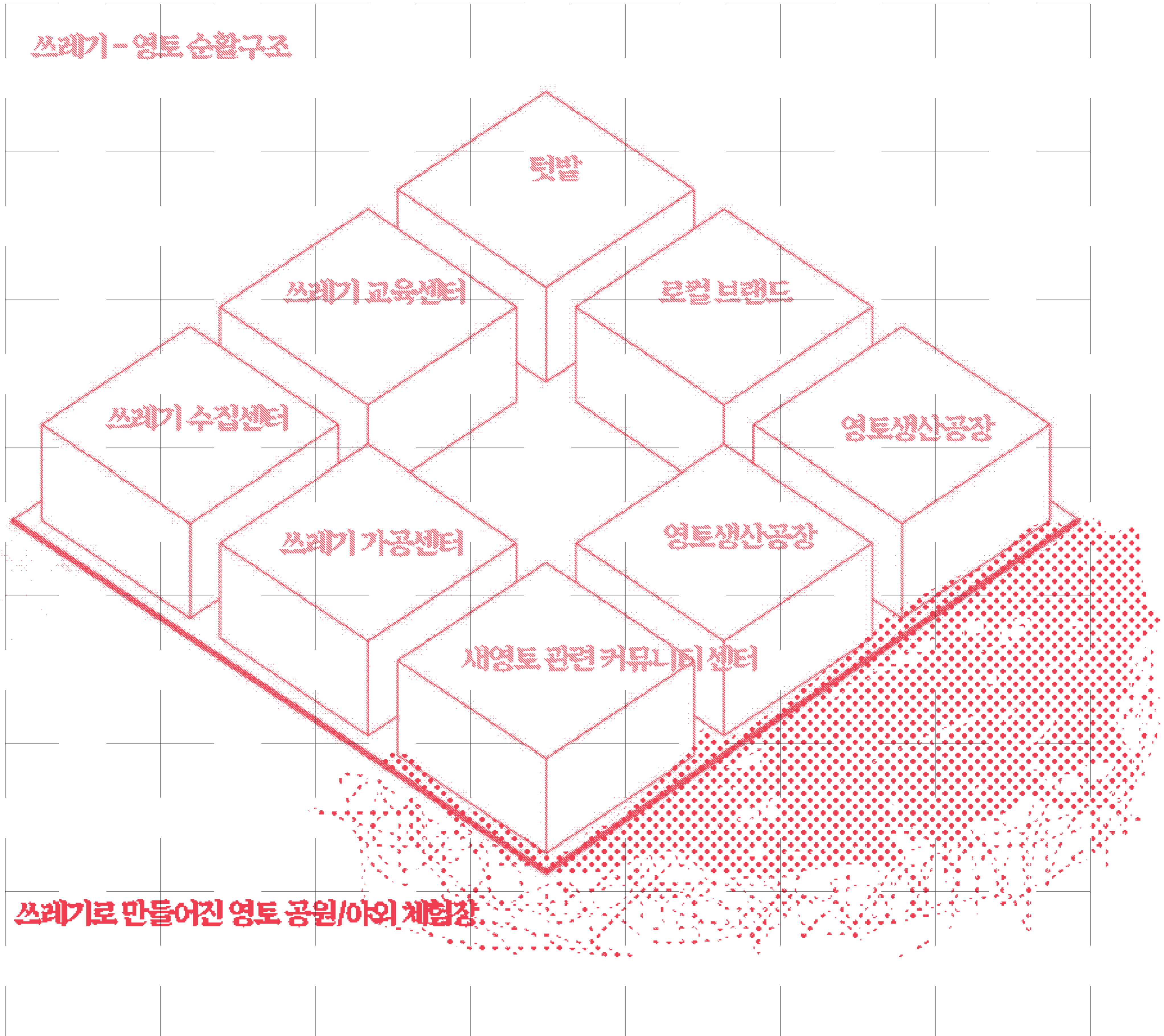
섬: 공동체

Workshop

Saturday
10:00 - 12:30

Week 5
(2021.3.20)

Drawing by
신현진



쓰레기에서 영토 생성을 하여, 쓰레기 그리고 환경에 이 플랫폼이 필요없어지는 목표
 여러 상황과 현실을 이슈화하며 대안은 실험/실천하는 플랫폼
 품 생성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할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
 쓰레기가 발생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구조를 짤수는 없고, 특정한 기간안에
 이 플랫폼이 필요없어지는 목표
 쓰레기 이외에 자연을 이용한 방식으로 영토를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

업사이클 유목민

Sum: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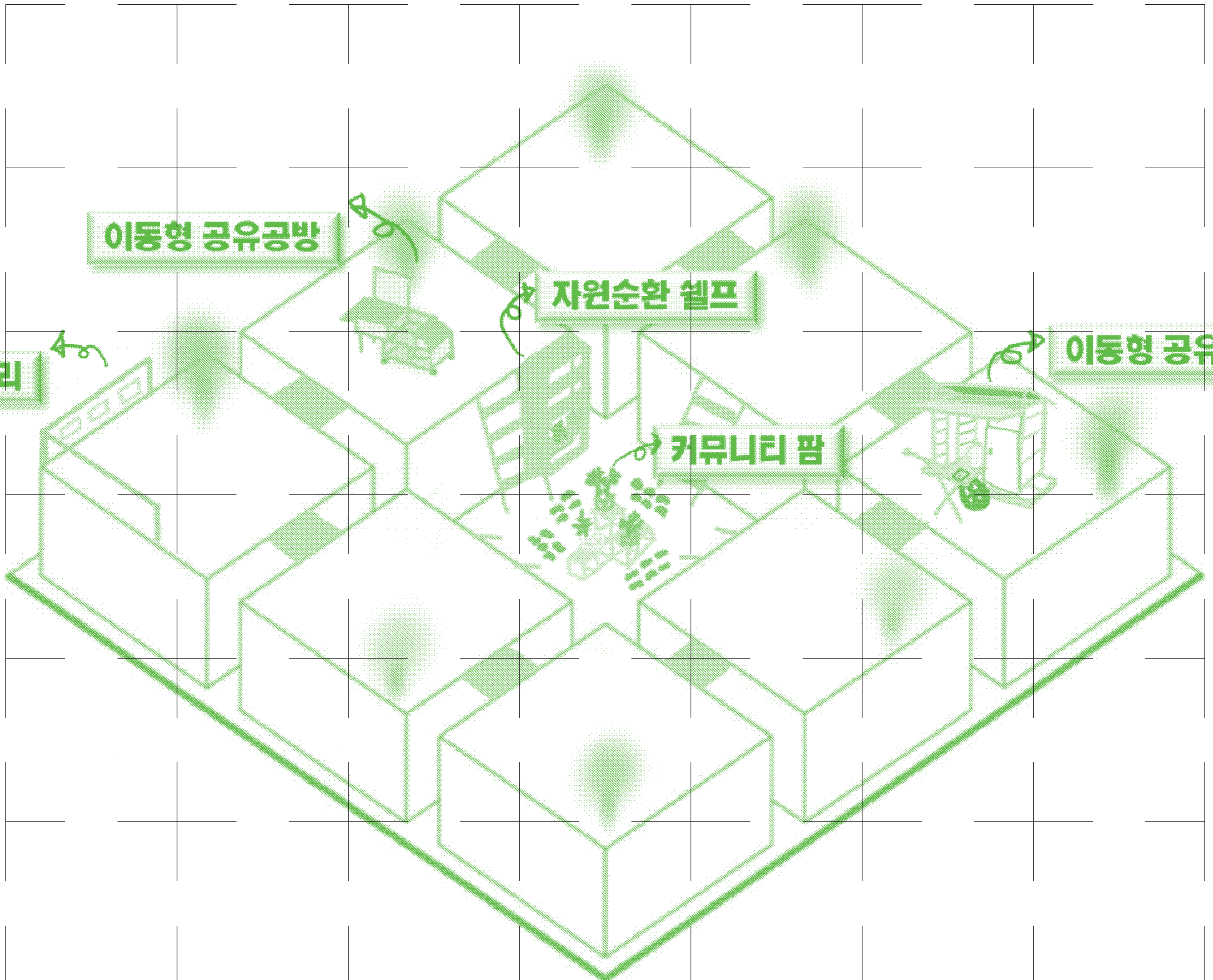
섬: 공동체

Workshop

Saturday
10:00 - 12:30

Week 5
(2021.3.20)

Drawing by
원치수



이번 과제를 진행하며 가장 먼저 가정한 것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이 마을은 주민들이 함께 설계 작업에 참여했으며 서로 간의 신뢰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모든 건물의 옥상은 개인 소유가 아닌 공유공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가상의 마을은 연결을 기반으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한다. 공유공간은 크게 두 곳이다. 하나는 중앙에 위치한 커뮤니티 팜과 각 가정의 옥상 공간이다. 커뮤니티 팜은 공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인데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커뮤니티 팜 옆에는 이동형 공유키친을 두어 수확한 작물을 활용해 즉석해서 요리하고 함께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가정마다 집 앞에 자원순환 쉼프를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재사용

가능한 물품을 쉼프에 배치하고 이 물품은 누구든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자원순환 쉼프에서 획득한 물품은 이동형 공방에서 작업이 가능하다. 이동형 공유공방은 옥상에 위치하며 이동 가능하게 설계하여 필요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원순환 쉼프에서 얻은 물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예 활동이 주로 이루어진다.

한 옥상공간에는 공유갤러리(문화공간)가 있어 주민들이 언제든지 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만한 공간을 마련하였다. 꼭 미술작품 뿐 아니라 스크린을 설치하여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다. 아직 비어있는 공간은 차차 채워간다.

이렇게 주민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공유하고, 소통하며, 자원이 순환할 수 있는 마을에서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함께 꿈꿀 수 있을 것이다.

공유, 소통, 순환이 있는 마을

Sum: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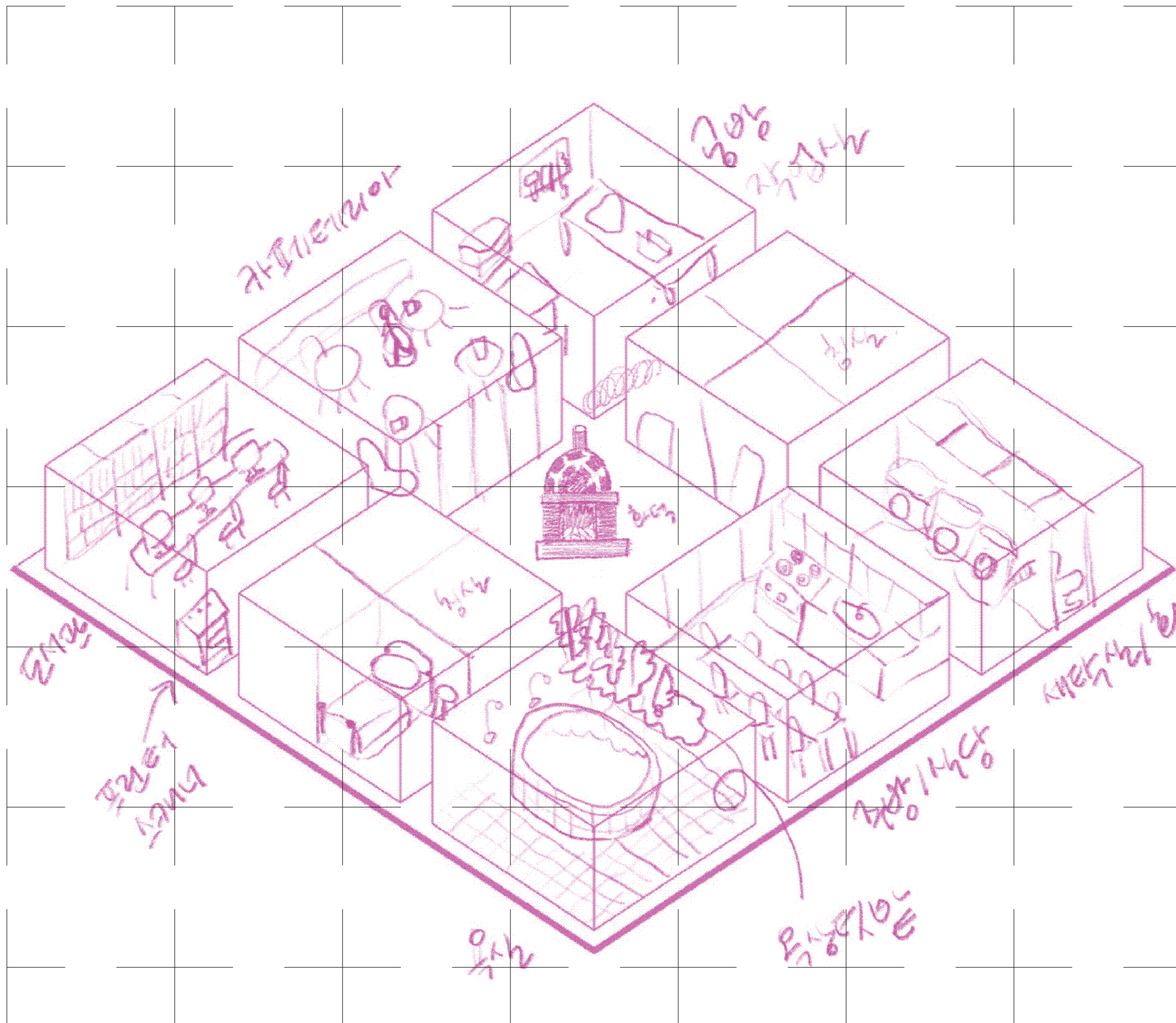
섬: 공동체

Workshop

Saturday
10:00 - 12:30

Week 5
(2021.3.20)

Drawing by
유재인



인간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물과 불을 공유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보았다.

화덕은 요리를 위한 것어카도 하지만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서적 안정을 주기도 한다. 마을 한 가운데에 있는 화덕에서 불을 때면 그 불로 요리도 하고 욕실의 물도 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욕실, 주방, 식당, 세탁실, 화장실은 한 줄로 연결하여 붙여있도록 구성했다. 물을 모아 변기에서 재활용하고 옥상텃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

카페테리아와 식당은 화덕을 가운데 두고 마주볼 수

있게, 그리고 문은 전면 폴딩도어로 설치하여 완전 개방되게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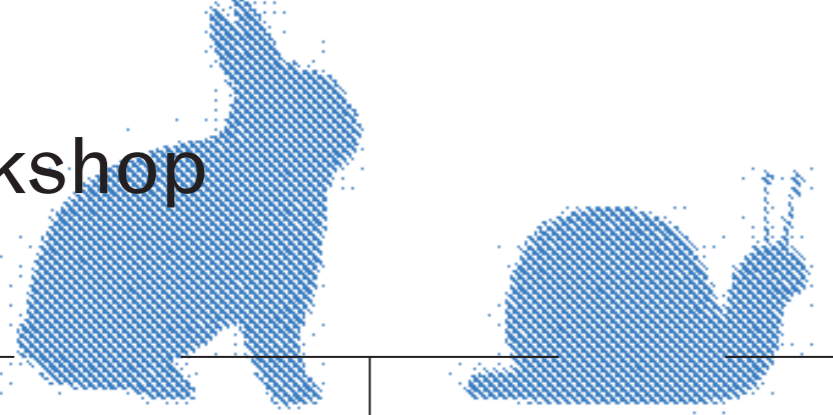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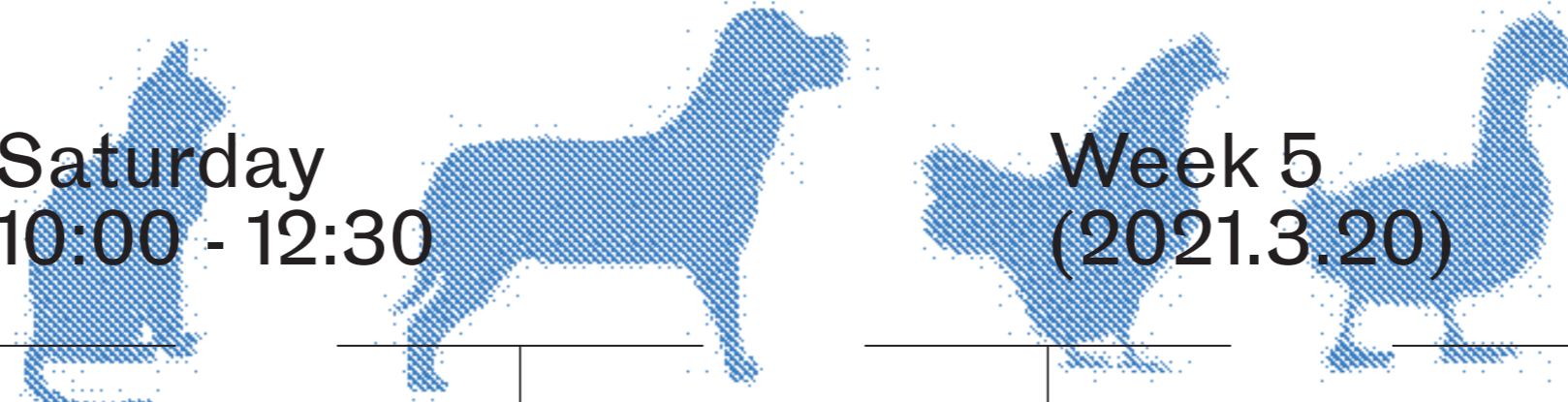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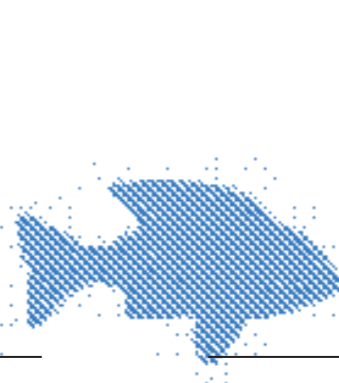
또 다른 공유공간으로는 도서관과 작업실을 선택했다. 혼자 살면서 가끔씩만 필요하지만 없으면 아쉬운 전자 기기 중 하나가 프린터인데 이 도서관에 프린터 복합기를 설치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작업실에서는 누구나 필요한 물건을 만들고, 수리하고,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비와 도구들을 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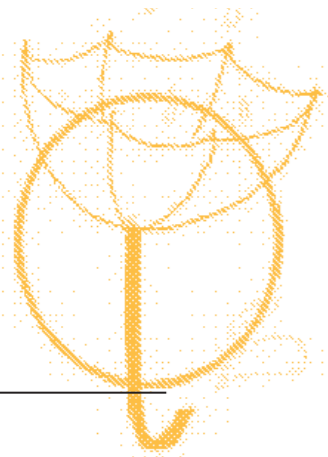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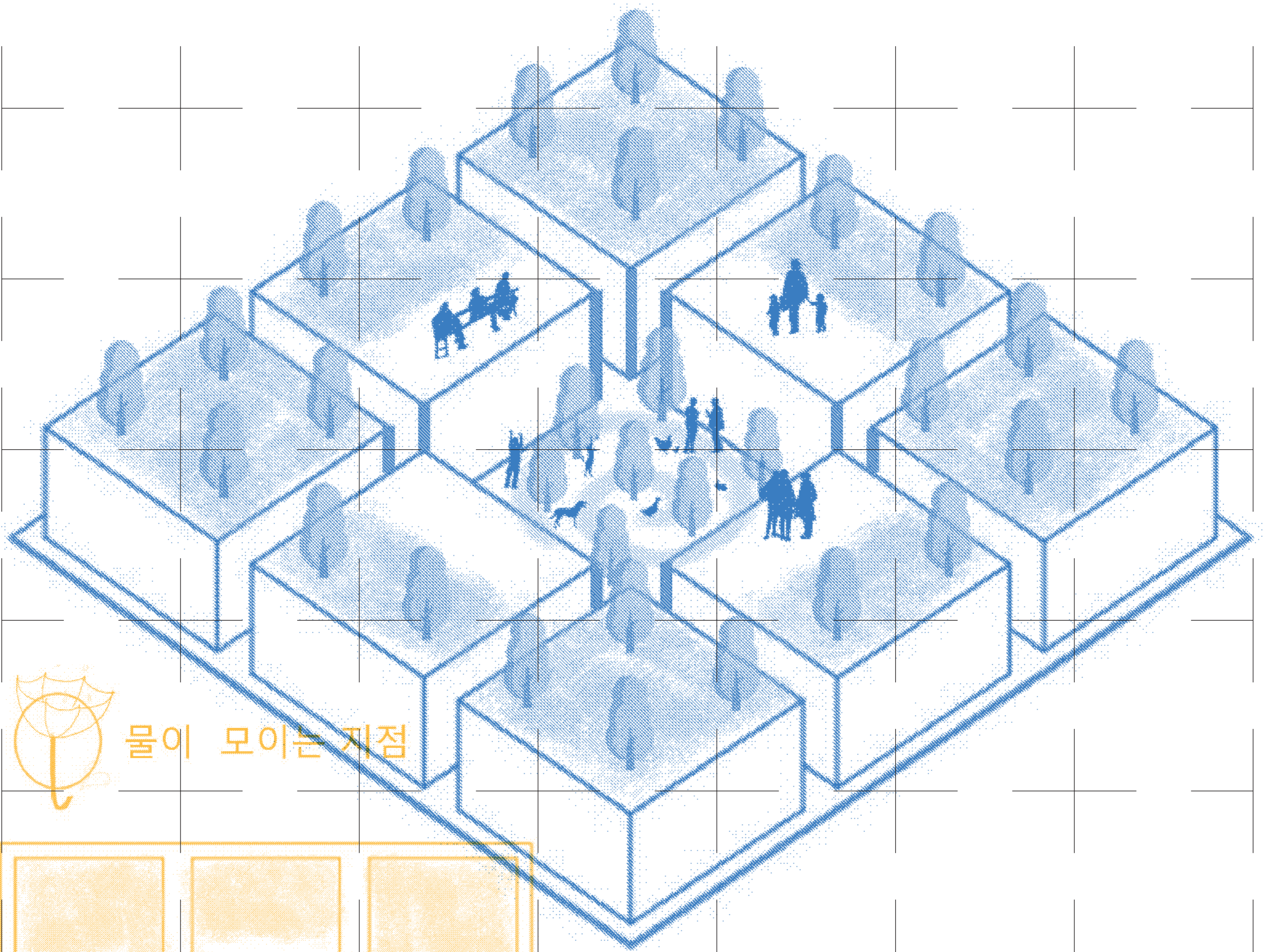
그리고 남은 공간에 8명이 각자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침실 8개를 마련했다. 개인 공간이 협소해 내향형 인간이 살기 어려운 마을이 되어 아쉽다.

물과 불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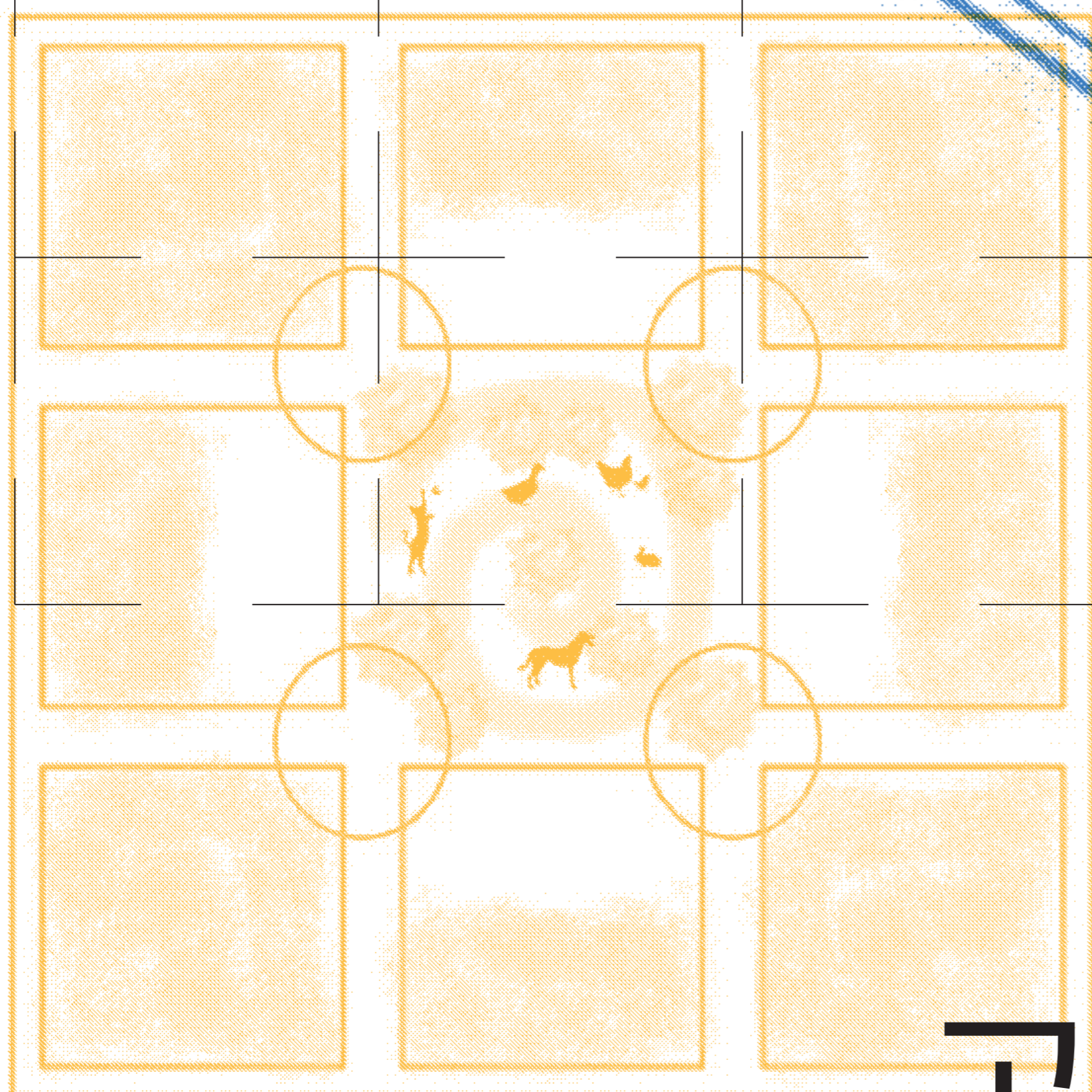
Sum: City

섬: 공동체

Workshop  Saturday 10:00 - 12:30  Week 5 (2021.3.20)  Drawing by 정다연



물이 모이는 지점



서로 다른 주거지의 환경을 고려해 옥상텃밭을 2인1조가 되어 함께 활용하고, 마당을 면하는 옥상의 일부 면적은 생활 공간으로 공유한다. 주거지의 불공평성을 해소할 수 있다.

비오는 날에 빗물을 모으는 지점을 지정해 3인 1조가 되어 함께 관리하고, 필터링 된 물은 마당의 공유수로 사용해 마당에서의 활동을 권장한다.

물길은 그 주위로 많은 사람과 다양한 생물들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물길 중심 커뮤니티를 생성하고, 동식물의 주인은 우리 모두가 된다.

공유마을

Sum: City

섬: 공동체

Workshop

Saturday
10:00 - 12:30

Week 5
(2021.3.20)

Drawing by
김영글



공동 고양이 놀이터

Sum: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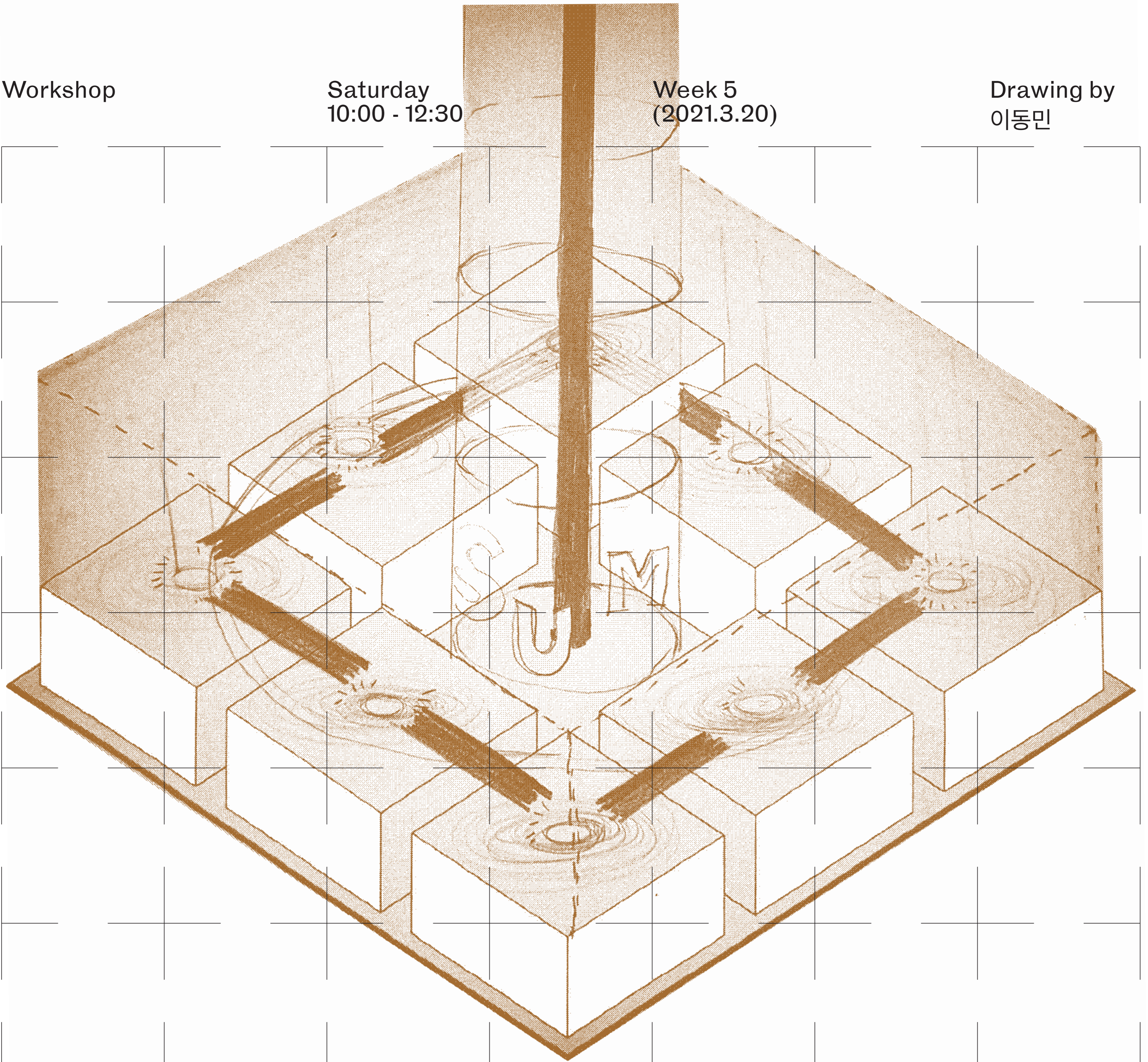
섬: 공동체

Workshop

Saturday
10:00 - 12:30

Week 5
(2021.3.20)

Drawing by
이동민



TVPR을 통해 모인 8가구의 참여자들은 워크샵이 끝난 뒤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이 곳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구현해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들을 제안하고 마을 내에 구현하였다. 하나의 유닛은 해수면 상승, 환경오염, 그리고 도시의 밀도를 고려해 수직으로 증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중심부의 검은색 코어는 구조적 안정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집들을 가로지르는 파이프라인의 설비공간으로 이용된다. 또한 중심부 코어의 실린더 외벽은 일종의 보드로서 가능하며 한 단씩 쌓여가며 생기는 공동체 내부의 문제, 아카이빙, 자원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코어와 직접적으로 면한 네 개의 셀에는 태양광 설비의 제안자 김소은님, 참여자들의 아카이빙을 맡은 성유진님, 외벽의 수직농업을 관리하는 손수진님, 멤브레인 정화층 유지의 책임자 정다연님의 집이 위치한다. 외곽으로는 경비와 건물의 물리적 유지보수를 맡은 본인과, 저층부 및 동물농장 연계 프로그램을 맡은 이동원님, 해가 다르게 높아지는 본 프로젝트를 기록하는 방송국을 맡은 유재인님, 공동체 내부의 결속과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자 원치수님의 집이 위치한다. 모든 집들은 증축을 위한 최소한의 구조를 제외하고 모두 확장되거나 자유롭게 공간의 구획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참가자들의 관계 및 공동체 내부의 문화에 따라 달라진다.

층층집

Stacking Community

Sum: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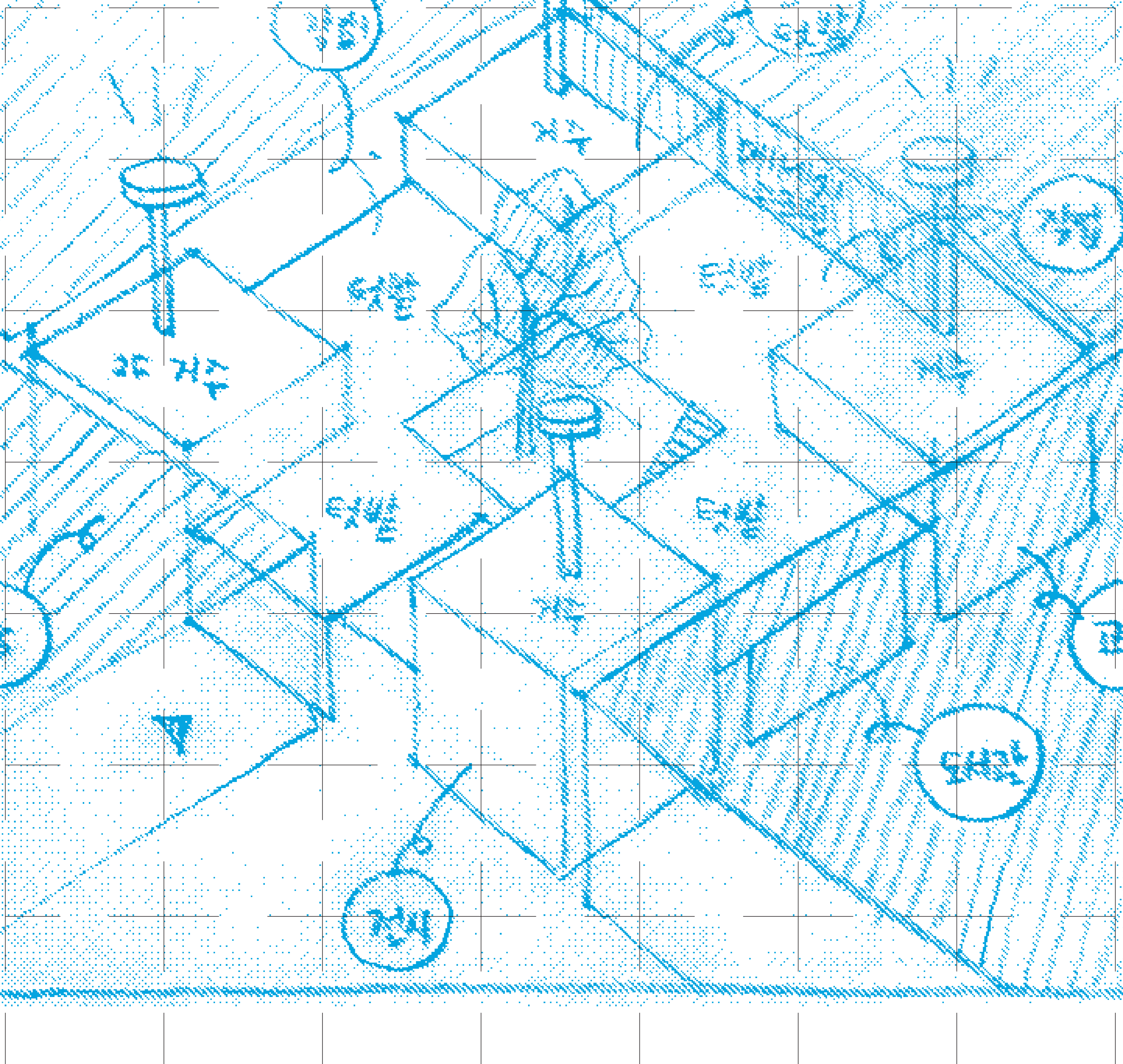
섬: 공동체

Workshop

Saturday
10:00 - 12:30

Week 5
(2021.3.20)

Drawing by
김소은



위치: 도시의 섬이라 할 수 있는 골목 안 쪽 건물들에 수 있는 텃밭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러 쌓인 어둡고 숨겨진 소외된 대지 햇빛을 실내 공간으로 전달하는 자연채광제어기술이
사람들: 환경에 가치를 가지고 활동가, 예술가, 디자이너, 오픈스페이스에 접하지 않는 네 개의 모서리 공간에
교육가로 활동하는 가치 표현을 중시하는 사람들 설치됩니다. 이 커뮤니티의 상징적인 이미지로 작용할 수
커뮤니티의 1층에는 공원(오픈스페이스) 주변으로 소 있는 이 제어장치를 통해 커뮤니티에서는 실내 공간 어디
룸, 전시, 도서관, 교육, 작업 공간 등 작업과 표현을 위한 에있어도 햇빛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공유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에는 개인의 거주 2개의 채광제어장치 사이에는 메시지 스크린이 설치
공간과 함께 채식주의자들을 위해 채소를 충분히 생산할 되어 가치표현의 도구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Green Action Village